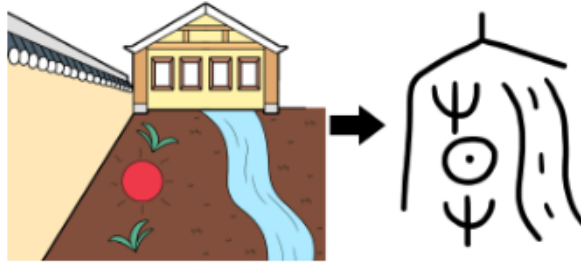


형성문자①



廟

사당 묘:

廟자는 '사당'이나 '묘당'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廟자는 宀(집 엄)자와 朝(아침 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朝자는 '아침'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조→묘'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사당'이란 조상의 신주(神主)를 모시는 곳을 말한다. 고대 중국인들은 시신을 매장한 다음 신주를 만들어 모셨다. 조상의 영혼이 신주에 깃들게 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신주를 만들고 나면 일정 기간동안 집안에 모셔 놓고 제를 지냈기 때문에 廟자에 쓰인 宀자는 '집'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금문에 나온 廟자를 보면 여기에 水(물 수)자가 더해져 있었기 때문에 별이 잘 들고 물길이 원활한 명당의 이미지가 느껴지기까지도 했다.

廟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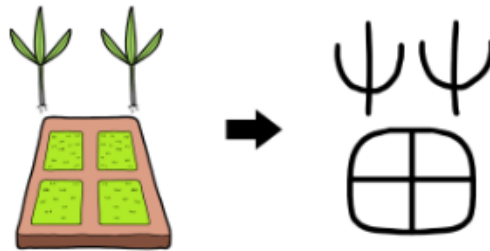
廟

소전

廟

해서

회의문자①



苗

모 묘:

苗자는 '모종'이나 '곡식'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苗자는 艹(풀 초)자와 田(밭 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모종은 벼를 논에 심기 전에 미리 싹을 틔운 것을 말한다. 씨앗의 발아율을 높이고 초기생육을 활성화할 수 있으므로 지금도 쓰이는 방식이다. 이것을 '이앙법(移秧法)'이라고 한다. 苗자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밭에 어린싹이 심겨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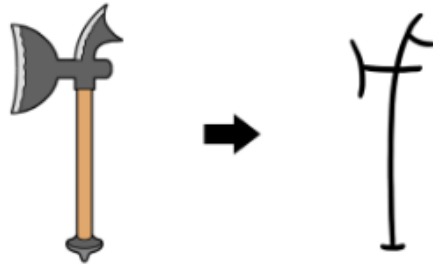
苗

소전

苗

해서

## 상형문자①



戊

천간 무:

戊자는 '천간(天干)'이나 '무성하다', '창'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戊자는 창(戈)의 일종을 그린 것이다. 이 창은 반달 모양의 도끼가 달린 것으로 주로 적을 베는 용도로 사용됐었다. 戊자에 '무성하다'라는 뜻이 있는 이유는 戊자가 종종 茂(우거질 무)자와 혼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戊자는 도끼 형태의 창을 𠂔 그린 것이다. 그러나 주로 戈(창 과)자가 '창'이나 '무기'라는 뜻으로 쓰이고 戊자는 '천간'의 다섯째라는 뜻으로만 쓰이고 있다. 천간이란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와 같은 오행(五行)을 표기하는 방법을 말한다.

𠂔

갑골문

𠂔

금문

戊

소전

戊

해서

## 형성문자①



霧

안개 무:

霧자는 '안개'나 '안개 자욱하여 어둡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霧자는 雨(비 우)자와 務(힘 쓸 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務자는 '힘쓰다'나 '업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안개는 공기 중의 수증기가 지면에 닿아 부영게 떠 있는 현상을 말한다. 안개가 짙게 낀 아침은 날씨가 맑은 징조라는 설이 있다. 이렇듯 霧자는 날씨와 관계된 글자이기 때문에 雨(비 우)자가 의미요소로 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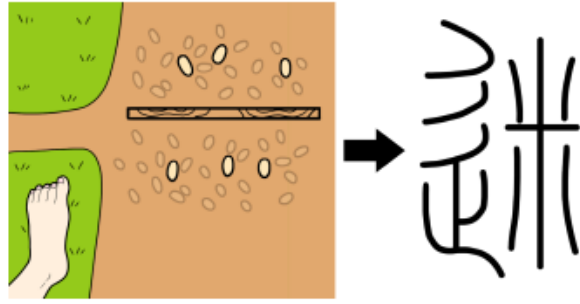
霧

소전

霧

해서

## 회의문자①



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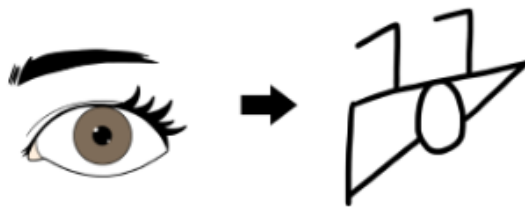
미혹할  
미(:)

迷자는 '미혹하다'나 '헛갈리다', '헤매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迷자는 辵(쉬엄쉬엄 갈 착)자와 米(쌀 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米자는 흩어진 쌀알을 그린 것이다. 迷자는 본래 '길을 헤매다'나 '길을 잃다'라는 뜻을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러니 쌀알을 그린 米자는 '길을 잃다'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 쓰인 米자는 '쌀'이 아닌 길이 사방으로 뿔어 나간 모습으로 응용되었다. 그러니까 迷자는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을 米자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迷자는 본래 '길을 잃다'를 뜻했었지만, 후에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뜻이 확대되어 '미혹하다'나 '심취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소전

해서

## 상형문자①



眉

눈썹 미

眉자는 '눈썹'을 뜻하는 글자이다. 갑골문에 나온 眉자를 보면 目(눈 목)자 위로 눈썹이 𠂔 그려져 있었다. 소전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변형되면서 지금의 眉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眉자가 들어간 글자 중에는 여럿 중에 '가장 으뜸이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백미(白眉)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촉나라 때 마량(馬良)의 5형제 중 흰 눈썹을 가진 량(良)의 재주가 가장 뛰어났다는 데서 온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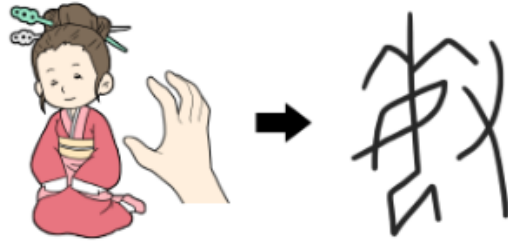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 회의문자①



敏

민첩할  
민

敏자는 '민첩하다'나 '재빠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敏자는 每(매양 매)자와 攵(칠 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每자는 머리에 비녀를 꽂은 여자를 그린 것이다. 그런데 갑골문에 나온 敏자를 보면 每자와 攵(또 우)자가 敏 결합한 형태였다. 이것은 여자를 낚아채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敏자는 본래 고대에 행해졌던 약탈혼을 표현한 것으로 여자를 신속하게 납치한다는 의미에서 '민첩하다'나 '재빠르다'라는 뜻을 표현한 글자였다. 하지만 소전에서는 攵자가 攴자로 바뀌면서 본래의 의미를 유추하기 어렵게 되었다.

敏

갑골문

敏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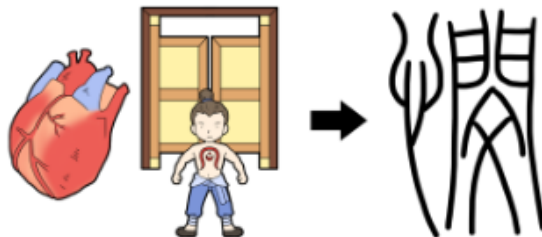
敏

소전

敏

해서

## 회의문자①



憫

민망할  
민

憫자는 '근심하다'나 '고민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憫자는 心(마음 심)자와 閔(위문할 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閔자는 門(문 문)자에 文(글월 문)자를 결합한 것으로 '위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閔자는 본래 상(喪)을 치르는 집을 뜻했던 글자였다. 고대에는 대문에 상을 치르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閔자를 적어놓았기 때문에 '근심'이나 '위문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근심을 뜻하는 閔자에 心자를 결합한 憫자는 상중인 가족들에 대한 걱정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뜻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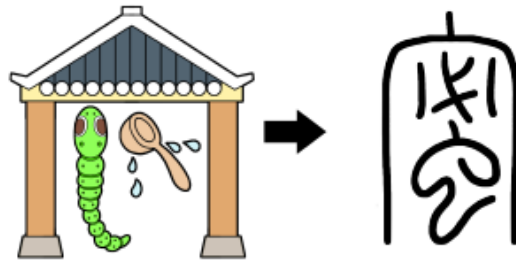
憫

소전

憫

해서

## 회의문자①



蜜

꿀 밀

蜜자는 '꿀'이나 '꿀벌'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蜜자는 宀(잠잠할 밀)자와 虫(벌레 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宀자는 집과 국자를 함께 그린 것으로 '(집안이)편안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의미와는 관계없이 집과 국자만이 응용되어 있다. 蜜자는 본래 '꿀벌'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벌 중에서도 꿀벌만이 꿀을 채취할 수 있으니 집과 국자가 그려진 모습의 宀자는 벌집과 꿀을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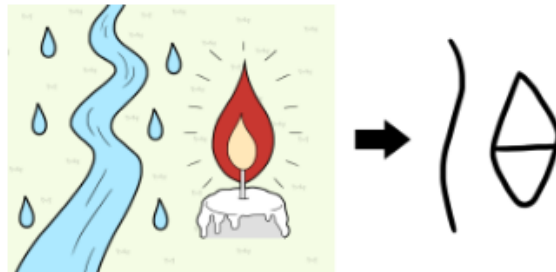
蜜

소전

蜜

해서

## 회의문자①



泊

머무름/  
배달 박

泊자는 '머무르다'나 '(배를)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泊자는 水(물 수)자와 白(흰 백)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白자는 촛불을 그린 것으로 '희다'나 '깨끗하다'라는 뜻이 있다. 泊자는 본래 '(배를)대다'나 '정박하다'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배를 정박하기 위해서는 수심이 얕은 물가까지 배를 대야 했다. 그래서 泊자에 쓰인 白자는 수심이 얕아 물밑이 비쳐 보일 정도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의 泊자는 배를 정박하는 것 외에도 어느 한 지점에 잠시 머무른다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泊

갑골문

泊

소전

泊

해서